

# 'Be the Reds!' - 'Be the Rationalists!'

월드컵, '합리성의 비합리성' ...  
합리성의 피안 '스포츠', 역설적으로 고도의 합리성 필요

글\_ 김덕영 독일 괴팅겐 대학교 박사



이제 월드컵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4년마다 찾아오는 지구촌의 대축제, 아니 세계인의 종교의식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벌써 4년 전의 감격과 흥분 그리고 전율이 되살아난다. 몸은 일터에 얽매어 있지만 마음은 독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 역시 그렇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월드컵에 열광하는가? 일상으로부터 '탈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작동하는 과제와 업무로 구성된 세계이다. 일상은 합리성의 세계요, 계산 가능성의 세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월드컵을 관전하면서 몸과 마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이를 통해서 주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 거기에는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거기에는 합리성의 피안이다.

권력·언론과 결탁한 전세계적 이벤트, 월드컵

월드컵은 - 아니 스포츠는 - 그 자체로 가치가 될 수 있다. 아니, 심지어 종교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표현을 빌리자면, 월드컵이라는 종교는 '이 세상적 구원' (the this-worldly salvation)이 될 수 있다.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가 '저 세상적 구원' (the other)이듯이 말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지난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을 되돌아보자. 2002년 6월 한국인들은 붉은색 아래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우리의 주체를 마음껏 발산하지 않았던가. 일상의 합리성과 계산 가능성으로부터 탈주해서 말이다. 'Be the Reds!' 라는 구호 아래 말이다.

그때 한국인들은 그동안 그들을 짓눌러오던 거대한

'레드 콤플렉스' 를 훌훌 벗어 던지지 않았는가. 그때 한국인들은 태극기를 몸에 감고, 태극기를 치마처럼 입으면서, 국가가 이제 단순히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몸의 심미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실로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던가.

당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렸다. 예컨대 성숙한 응원문화를, 아니 시민문화를 보여 주었느니,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느니, 공동체 정신이 복원되었느니 하는 식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월드컵에는 - 아니 스포츠 일반에는 - 역설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다. 합리성의 피안인 스포츠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바로 합리성을, 그것도 고도의 합리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또한 필요로 한다. 월드컵은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비합리적 세계인 스포츠를 떠받치는 합리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스포츠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합리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즘에는 스포츠가 첨단과학 및 거대자본과 결합하면서 그 추구하는 미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의 과학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강인한 미, 신속한 미, 유연한 미, 끈기 있는 미, 조화로운 미, 세련된 미 그리고 균형 있는 미 등을 즐길 수 있다. 과학과 자본주의 - 이것들이야말로 현대 합리성의 구현이자 상징이 아니던가.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스포츠가 추구하는 미가 향상되고 진척되기 지극히 힘들다. 그런가 하면 자본의 논리가 권력이나 언론과 결탁해 월

드컵이라는 전 세계적 차원과 수준의 이벤트를 조작한다.

#### 다양성·다원성 없는 한국 응원문화, 그리고 공동체

합리성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국민적 영웅이 된 거스 히딩크 감독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에게 연고주의와 파벌주의 그리고 서열주의를 가지고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네 스포츠계는 원래 Y와 K대 패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그 밑에서 다른 몇몇 대학 패거리들이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합리적인 서구에서 온 히딩크에게 한국의 연고주의와 파벌주의 그리고 서열주의는 너무나 가소롭게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 아니 아예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범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능력위주로 선수를 선발했고, 영원한 주전은 없다는 기치 아래 선수들에게 무한경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합리성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6월에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 정신의 완벽한 복원이었다. 개인은 완전히 부정되고 무화(無化)되었다. 월드컵에서 보여준 개인 없는 공동체가 마치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인 양 떠들어댄 사람도 어지간히 많았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현대사회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으로서의 개인을 바탕으로 존립한다. 이러한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줄 안다. 따라서 스포츠를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취향과 문화의 관점에서 즐길 줄 안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즐길 줄 안다.

진정한 의미에서 스포츠를 통해 일상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다. 즉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다. 더불어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 수준과 차원의 이벤트 이면에서 작동하는 거대자본의 논리도 간파할 줄 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은 개인의 완전한 해체에 지나지 않는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복장, 똑같은 구호, 똑같은 함성, 똑같은 동작, 똑같은 감정을 보여주는 공동체에서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포츠는 합리성에 토대를 두는 비합리성의 세계이다. 그런데도 우리네 스포츠는 - 매우 애석하게도 - 비합리성에 토대를 두는 비합리성의 세계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그것도 벽안의 네덜란드 감독에 의해서 합리성이 이루어지면서 - 물론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 월드컵에서 그토록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그토록 커다란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토록 커다란 전율을 체험하게 되었다.

#### 광기에 가까운 획일화된 응원

'Be the Reds!' - 'Be the Rationalists!'로 전환하자

한 가지가 더 있다. 개인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화시킨, 그야말로 획일화된 공동체의 광기에 가까운 응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는 비합리성에서 현대사회의 토대를 찾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정신이 어땡고 저땡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토대는 합리성에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 사회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비합리성이 그 당시에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대이벤트에서 우리가 거둔 놀라운 성과와, 그로 인해서 형성된 거대한 감정의 물결과 일체감 및 공동체 의식에 완전히 가려져 우리에게 전혀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으면서 일시적으로 덮여져 버린 비합리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Be the Reds!' - 정말 멋진 구호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구호는 'Be the Irrationalists!'로 연결될 수는 없다. 아니다. 연결될 수 있다. 문제는 오로지 스포츠 경기장에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 거기서는 그래야만 한다. 'Be the Reds!' - 'Be the Irrationalists!'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와 일상의 삶에서는 'Be the Irrationalists!'라는 구호가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Be the Reds!' - 'Be the Irrationalists!' 

